

취업 성공 스토리

지방행정 9급

설유휘 / 식물생명공학부 응용생물학전공

합격기업 남원시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기본스펙 학점 : 3.34 / 토익 : 700점대

대학생활

인턴 없음

현장실습 없음

공모전 없음

봉사활동 없음

아르바이트 없음

기타 없음

자격증

전공 없음

일반 없음

대학생활 스토리

학창시절 저는 학교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던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진로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 친구들과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갖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막연한, 현실성 없는 목표만을 말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만족도 높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대학교와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그 때 비로소 대학교와 학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차분히 생각해보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본 끝에 전남대학교 식물생명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중·고등학교 생활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짤 수 있었고, 무척이나 자유로웠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데다가 대외활동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해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의 소극적인 자세에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개인 시간이 많았던 덕에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 않았기에 대학교 때는 진로를 더 자주 고민해보자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강의에서 배우게 된 것들은 충분히 재미있었고, 한때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볼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식물생명공학부에 재학 중이었기에 연구직이나 교직이수 등의 방법을 고민했었는데, 이런 전문성이 강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저에게 이러한 요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빨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오래 걸리는 제 성격을 생각해 이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성 높은 직업을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족들과 상담하던 중, 언니가 '휴학을 하고 같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언니를 따라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시험 준비를 하던 언니 덕에 정보를 얻기도 수월했고, 공부 내용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총 1년간의 휴학기간은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를 보면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적은 강의를 많이 활용하는데, 저는 학원을 다니며 열성적으로 공부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에 공부 자극을 받는 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광주로 내려와 복학한 후엔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긴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 지방직·국가직·서울직 시험이 잡히면 꾸준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공무원에 합격하고 졸업까지 유예한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다니며 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 업무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고기를 구워줬어야 했던 가게 특성 상 손님도, 아르바이트생도 많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식당이었기에 아르바이트생들 중에는 또래가 대부분이었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고민거리나

관심사가 공통된 부분이 많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같이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성격의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며 낯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면 행정복지센터로, 매일 새로운 민원인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당시 다른 직원들로부터 민원인을 능숙하게 대한다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벌기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저의 낮가림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셈입니다.

대학 생활동안 내게 큰 의미가 있던 또 다른 경험은 실험실 생활입니다. 비록 실험실에 들어간 첫 계기는 '졸업논문'이었지만, 실험실에서 평소에는 해보지 못 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졸업논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 주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실험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관찰해야 했기 때문에 일을 미루지 않는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µ라는 작은 단위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결과를 보며, 세심한 부분을 관찰하는 관찰력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라 실험 내용이나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할 기회가 좀처럼 오지는 않지만, 그 때 제가 배운 값진 가치들은 현재의 저에게 큰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지원경험

1. 지원회사 : 남원시청
2. 지원직무 : 지방행정직
3. 준비과정

저는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력이 강하지는 않은 탓에, 혼자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공부 계획을 지켜낼 자신이 없었고 언니를 따라 공무원 학원에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휴학 기간을 활용해 과목별 공부하는 요령과 긴장감을 익히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극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학원을 다녔던 기간은 수강생들을 보며 자극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업 받기 위해 수업 시작 30분 전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필기를 하는 모습들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고, 어중간한 자세로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휴학기간에는 매일 정해진 공부량을 지켰고, 복학을 한 후에는 시험기간이나 수업시간 외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꾸준히 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행정학은 공부를 할수록 헛갈리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시험 당시 실수하지 않도록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시험 일정이 잡히면 지방직·서울직·국가직 시험 모두 빠지지 않고 응시하며 긴장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4. 면접후기

전라북도 소재 시·군 지방행정직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기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면접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면접 질문도 면접자에게 압박을 주는 내용은 없었고, 최근에 읽었던 책 제목과 인상 깊었던 내용,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존경하는 인물 등 면접 자리에서 크게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대답할 수 있을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 있는 자세로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쉬운 질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양수업에서 개인발표나 조별발표를 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무적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수업도 있었고, 조별발표의 경우에는 내가 실수하면 조 전체의 점수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전에는 늘 연습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담이 커서 많이 긴장해야 했지만, 이러한 경험 덕에 저의 '말하는 능력'은 면접시험에서 빛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5. 해주고 싶은 말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일을 일찍 시작하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취업에 너무 조바심을 가지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미래의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어떤 직업을 희망하든, 나를 먼저 알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행과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유로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 한번쯤은 부딪혀보는 것이야말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흔히 '정시퇴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조차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취미생활에 쓸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일이나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일이나,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일 등 뭐가 됐든 좋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미래의 자신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듯이, 친구들에게도·낯선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접에서도 과하게 긴장해서 하고 싶은 답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